

# 문 대통령 “당정관계 환상적”...이낙연 “운명공동체”

### 청-민주 지도부 간담회...코로나19 위기극복 ‘원팀’ 강조 문 “코로나로 국민 삶 무너져...협치 중요해져” 이 “개혁입법 완수...대통령-김종인 회동 제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원팀’ 정신을 되새기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9일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국정운영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 당정간 관계는 환상적이라고 할 만큼 좋은 관계”라며 “지금의 국난극복뿐만 아니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한국을 선도국가로 발전시켜 가기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 마련까지 당정이 최선의 방안을 찾아주셨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야간 협치, 나아가 여야

정간 합의, 또는 정부와 국회간 협치에 대해 지금까지 국민들이 바라는 시기가 없었다”며 “지금 위중하고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서도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협치가 중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비스업 종사자 등의 경제적 타격을 언급하면서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는 모습이 우리 눈에도 보일 정도여서 정말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4차 추경안, 긴급재난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소개한 뒤 “국난극복에 있어 ‘문재인 정부가 바로 민주당 정부’라는 당

정간 하나 되는 마음으로 임해 나간다면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국난극복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최고위원단, 원내대표단 또는 상임위원장 등을 모셔서 소통시간을 갖겠다”며 “특히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초선 의원님들에게 미안한 심정을 잘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당정정은 운명공동체고, 당은 그 축의 하나”라면서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과) 여야대표간 회동을 추진해줬으면 한다”며 “또는 일대일 회담이어도 좋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일대일 회담’이란 문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담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10일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점심식사를 한다”며 “큰 성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원칙적 합의라도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과제와 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해 개혁입법을 완수하는 것을 회기에 꼭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위축

완화, 미래 대비를 위한 한국판 뉴딜 본격화, 균형발전을 위한 정치적 합의나 입법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참석자 전원이 마

스크를 착용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서울=강병은 기자

##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에 강은미

### “연대·협력 바탕 ‘무지개 정치’ 노력”



정의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원내대표에 강은미 의원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비례대표인 강 원내대표는 “전태일 열사의 절규와 김용균의 죽음을 기억하는 국회,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무지개 정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내수석부대표 겸 원내대변인에는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장혜영 의원이 임명됐다.

앞서 배진교 전 원내대표는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했다.

/연합뉴스

## 정부 “의사 국시 추가 접수, 국민동의 선행돼야”

### “국가자격시험 준비생들과의 형평·공정성 우려”

정부는 9일 의료계의 의사국가시험 추가 접수 등 의대생 구제책 마련 요구와 관련,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손 대변인은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국가시험의 추가 접수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을 구제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는 적지 않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고, 이날 오전 10시 35분 기준 47만9,926명이 동의했다. 손 대변인은 “의대생들은 현재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국가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견도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가시험의 추가 기회를 논의하는 것 자체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지난 8일부터 시작됐지만, 의대생의 응시 거부로 인해 시험 첫날에 이어 이날도 6명만 시험을 치르는 상황이다. 올해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율은 14%로, 역대로 가장 낮다.

손 대변인은 “정부와 대한의사회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고 전공의 단체들이 하나씩 진료현장에 복귀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정부는 의사협회와 합의문 이행을 위해 의정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그 안에서 진정성을 갖고 열린 자세로 최선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로 내년도 의료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 “군의관은 인턴 또는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친 전문의를 중심으로 선발되고 있어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공보원에 대해서는 “현재 1,900여명에서 내년에는 500명 정도가 총원되어야 하는데 이 인력은 모두 의대 졸업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인턴을 마친 의사들과 전공의 수련 과정을 끝낸 전문의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300명 내외의 인력 소요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예결위 결산심사소위원회

9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추경호 소위원장(가운데) 주재로 제4차 예결위 결산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낙연 “의원들 연동 조심하라” 엄명

### 윤영찬 카카오 뉴스 논란 계기 ‘군기반장 모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9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연행 주의를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뉴스 편집 압박성 문자’ 논란을 언급하며 “저를 포함해 모든 의원이 국민들의 오해를 사거나 격정을 드리는 언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

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몇 의원이 국민에게 걱정드리는 언동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 사례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일부 의원이 부동산 정책이나 추미에 법무장관 아들 의혹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발원 논란을 한 번에 지적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이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원내 기강을 다잡아달라는 취지로 이해됐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윤 의원 문자논란 과정에서 본인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더 엄격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윤 의원이 문자를 보낸 것이 지난 7일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8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한 뉴스 편집을 비교하며 항의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태도뿐 아니라 업무성과에서도 고삐를 바짝 죄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전날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첫 회의에서 “저는 일을 안 하면 안 했지 유아무야 하는 것은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라 (한정에) 총괄본부장이 집중력을 가지고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내각 ‘군기반장’이었던 이 대표가 당에서도 그 역할에 시동을 건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국무총리 시절 이 대표는 총리실 간부는 물론 장·차관이 현안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거나 정책준비가 부족하면 즉석 질책을 서슴지 않았다.

/연합뉴스

# 화장실칸막이의 모든것 중원큐비클과 함께



## Cubicle Innovation

We will create a futuristic toilet culture

화장실 칸막이 40년 노하우로 직접 생산 및 전문시공업체  
다년간의 관공서, 기업체, 상가, 병원, 학교, 어린이집, 휴게소 등  
시공 및 판매 경험으로 화장실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해 드립니다.

- 직접생산을 통한 저렴한 가격
-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제품 신뢰성
- 생산자 직접 시공을 통한 완벽한 시공

전국 어디든 불러만 주시면 바로 달려 가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T : (062)525-6993~4    M : 010-3647-3832  
F : (062)525-3832    E : jwc3832@nate.com  
(우)61900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502번길 20-8